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16, 2021 Vol. 794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벨리 교협 성탄절 축하

총 22명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샌퍼난도벨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회장 조남민 목사)는 지난 5일,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벨리 지역 한인교회연합 성탄 축하예배와 성탄 축하 찬양제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다.

신바나바 목사(벨리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성탄 축하 예배는 전지승 목사(운유한교회)가 기도한 후 조남민 목사가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또한 벨리지역 한인교회목회자들은 연합으로 성탄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이날 예배는 문광현 목사(벨리 원로은퇴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2021년 샌퍼난도벨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예배'에서 찬양하는 목회자들과 사모들

예배를 마쳤다.

성탄 축하 찬양제는 이정현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벨리 섹소폰 앙상블이 리틀 드러머 보

이와 주님다시 오실 때를 연주했으며, 신바나바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벨리성경교회 찬양팀이 "By This We Know

Love"와 "Rejoice"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했다. 또 오 거룩한 밤이 디지털 호른으로 울려 퍼지며 성탄의 분위

기를 무르익게 했다.

샌퍼난도벨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는 올해도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총 2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남민 목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2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기금은 벨리성경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운유한교회, 벨리생명의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만남의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주안에교회, 서홍석 치과, Simi Ob-Gyn (Cathy Kim, MD), 벨리코리안뉴스, 벨리매거진이 협찬했다. 김동욱 기자

영 김 의원 “北 비핵화와 인권 개선 없이 종전선언 안돼”

美 공화당 하원의원 35명,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게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벗 의원 등이 서명했다고 한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다고

VOA는 “이번 서한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 논의가 이뤄지고있는 가운데 보내진 것으로, 미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 전에 제재 완화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등 미국과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기상조의 평화 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기독교일보

구실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할 문을 열어 주는 것은 미 국가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 역지력을 훼손하며 수많은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보여준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대화의 정점에서 적대행위 종식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VOA는 전했다. 이어 “김 씨 정권에 미국과 한국, 동맹국이 북한의 공격성에 맞설 입지를 상당 부분 약화하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공유 가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행위 종식 선언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런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2 HAPPY NEW YEAR

은혜이슬 특별새벽무흥회

꿈은 꾸고 이룩머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2022.1.3(월)~8(토)
월~금 새벽 5:30am / 토요일 새벽 6:00am / 은혜한인교회 본당

1/3(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4(화) 5:30am 강사: 백정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1/5(수) 5:30am 강사: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담임)	1/6(목) 5:30am 강사: 윤대혁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1/7(금) 5:30am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1/8(토) 6:0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	--	--	--	---	--

LIVE **www.gracemi.com**

신년 축복성회

송구영신예배: 2021.12.31(금) 10:00pm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일천번제특별새벽기도 5:30am | 금요성령성회 7:30pm

2022.1.20(목) ~23(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강사: 장순직 목사(문막드림교회담임)

장순직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남가주 한·흑 커뮤니티, 환상의 하모니로 유대감 확인

2021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12일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열린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의 제 8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가득 담은 격조 높은 선율로 음악 애호가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했다.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함께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연주자들이 정성껏 만들어내는 섬세한 선율은 높은 예술의 경지를 만끽하게 할만 했다. 특히 코비드 펜데믹으로 마음껏 문화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연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세심한 소리를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남가주 지역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의 가장 대표되는 연주 단체인 바이텍스(BYTHAX) 앙상블은 게스트로 협연하며 크리스마스 멜로디와 가스펠 송



2021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에서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가 훌륭한 연주를 선보인 연주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등으로 아프리카인 특유의 흥겨움과 영혼의 깊이는 울림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한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우효원 작곡가의 “오 코리아

를 오케스트라와 전통 타악기인 모듬북이 어우러진 웅장한 소리로 표현했다.

한·흑 양 커뮤니티는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환희와 우정의 하모니로 연주하며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라크마 장학생들의 수준급 협연도 청중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 냈다. 라크마는 이날 2021 장학생으로 선발된 1등 수상자인 레오날드 헤이즈와 강 데이

빗에게 각각 3천 달러, 2등 수상자인 에반 라팻에게 2천 달러, 그리고 3등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방에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음악 감독 윤임상 교수는 “우리의 이웃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음악 문화를 통해 양 커뮤니티가 교류하는 감동적인 연주회 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라크마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사명 아래 2012년 창단되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음악회의 수익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다민족을 품는 취지로 연주회를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 받아 로스앤젤레스 아트 커미션(Los Angeles Arts Commission)이 공식 후원하는 단체로 선정됐다.

김동욱 기자

차인홍 교수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발견”

2021 밀알의밤 “THE FIRST NOEL” 개최

장애인 선교 단체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한 2021년 밀알의 밤이 지난 5일, ‘차인홍’ 교수를 초청해 “THE FIRST NOEL”이란 주제로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2021 밀알의밤은 현장 공연과 온라인 방송 등 2가지 방식으로 개최되는데, 성탄절인 12월 25일(토)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날 녹화된 크리스마스 콘서트 스트리밍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펜데믹의 영향으로 예년처럼 공연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남가주밀알 가족들과 후원자들만 초청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했다.

메인 게스트로 나선 차인홍 교수는 마음을 울리는 바이올린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Wright State Univ.) 교수 겸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2021년 밀알의 밤에서 ‘Charis Christian Chamber’와의 협연하는 차인홍 교수

차 교수는 ‘Charis Christian Chamber’와의 협연으로 넬라

판타지아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

향의 봄/ 곧 오소서 임마누엘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과 클래식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연주 중간마다 이어지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했다.

차 교수는 “밀알선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 하시는 단체”라며 “장애를 비롯해 우리 인간의 약점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넓혀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사 Rate 월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려지지 않은 매물만 소개합니다! **New Star Carol 뉴스타 케롤 리** 2018 뉴스타 <금탑> 에이전트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2년을 믿으십시오

치노힐스 \$98만

방5화3.5 건평약 3300 SF 새 마루바닥 밝고 시원한 실내구조 최고학군 최고 지역

라미라다 \$73만

방7화3 건평 약 1900 SF 바이올리대학 도보거리 최고지역 현재 렌탈인컴 \$4100 편리한교통

부에나팍 웨어하우스 리스 \$4,400

약 4000sf, 5번과 91번 Fwy 가깝음, 편리한 교통 커먼웰스와 비치길에서 2블락 서쪽

애나하임 웨어하우스 리스 \$6,000

럭셔리사무실 1개 화장실 1개+ 창고 건평 약 5500SF 편리한 교통, 5번 Fwy 가깝음

부에나팍 사무실 리스 \$2,500

건평 약 1300SF 부에나팍 한인타운내 편리한 시설과 교통

라팔마 지역 메디컬 오피스

라팔마병원내 최고 좋은 지역, 자세한 내용은 문의

강력추천 치노힐스 렌트 \$3,800 방5화3.5 건평 약 3300 SF 새 마루바닥 밝고 시원한 실내구조 최고학군 최고 지역

플러튼 48만5천 방2화2.2 건평 약 1200 CSUF 인근 리모델링, 편리한 교통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플러튼 콘도 55만5천 방3화3.3 건평 약 1619 최고의 로케이션 다운타운, CSUF 인근 편리한 교통	플러튼 67만5천 방5화2.2 건평 약 1,404 예쁘게 리모델링된 집 편리한 교통, 위치	플러튼 110만 방4화3.5 건평 약 2700 매우 넓직한 단층집 울드 세니힐 지역
세리토스 55만2천 방2화3.3 건평 약 1,590 넓고 밝은 집 높은 천장	세리토스 69만 방4화2.5 건평 약 1400 완전 리모델링된 단층 최고학군 최고지역	애나하임 새집 52만 방2화2.5 건평 약 1400 완전 럭셔리한 모던을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애나하임 새집 58만 방3화3.5 건평 약 1700 완전 럭셔리한 모던을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부에나팍 42만 방4화2.5 건평 약 1300 이례총방 싸이프레스칼리지인근	부에나팍 72만 방3화2.5 건평 약 1600 sf 호수기 단지내에 아름다운 집 밝고 환한 실내구조 부에나팍 한인타운내 최고위치	싸이프레스 54만 방3화3.3 건평 약 1600 게이트단지내에 있는 예쁜집, 2005년생 옥스포드 학군	싸이프레스 65만 방5화2.2 건평 약 1900 완전히 고쳐야되는 집 최고위층에 싸이프레스 칼리지인근 싸이프레스학군 아래층에 방
라미라다 49만 방3 화2 건평 약 1300 예쁘고 잘 정리된 집 케네디하이 도보거리	라미라다 69만 방3 화3.5 건평 약 1500 관리한 실내구조 & 생활공간 이중집 아래층방 넓은 거실, 케네디하이 옥스포드학군	라미라다 55만 방3화2.2 건평 약 1250 넓직한 실내구조 단층집 부에나팍 한인타운내 5분거리	라미라다 99만8천 방5화3.3 건평 약 2708 최고의 로케이션, 고급 인테리어, 게이트가 있어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뉴스타사이닝스타> 에이전트!! 케롤 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ell 714.345.4989

- 현 오픈지부부한인회 회장
- 뉴스타장학재단 이사겸 심사위원
- 뉴스타부동산 뉴에이전트 특강강사
- 싸이프레스 25년 거주
- UCI 졸업 ● 확실한 1.5세
- Million Dollar Club
- 라디오에서 1650 AM 부동산정보
- 한국일보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

Office_714.994.3377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 리 ★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신입회장에 우영화 목사 선출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총회 ©기독일보

LA 동부교역자협의회가 지난 13일, 엘에이 동부지역 콜리마의 신원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신입 회장에 우영화 목사(동부 사랑의교회), 총무에 박진호 목사(늘푸른교회)가 선출됐다.

신입회장 우영화목사는 “선배 목회자들이 이어 온 귀한 전통을 이어 하나되는 동부교협을 세워가도록 겸손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박진석 회장(브릿지 교회 담임 목사)은 사역보고를 통해 “2021년은 팬데믹 기간중에도 정기적인 줌 모임과 대면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연합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에과 4월에 열린 ‘팬데믹시대 미주 한인 교회 의식구조 설문조사’와 ‘이상훈교수(미성대 총장)의 팬데믹 시대 의식구조 설문분석

강의’에 동부지역 10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팬데믹 시대 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회간의 연합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교역자협의회는 매년 연합찬양제,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 광복절 연합기도회, 성탄 연합성가제로 동부지역 교회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백 년에 한 번 피는 꽃 ‘용설란’ 풍성한교회에 만개



풍성한교회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용설란.

남가주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 백 년에 한번 꽃 피운다는 꽃 ‘용설란’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이번에 꽃을 피운 용설란

은 높이가 4미터, 길이는 5미터가 넘을 정도로 풍성한교회교인들은 새해를 앞두고 꽃망울을 터뜨린 용설란에 함박 웃음을 지었다.

샌퍼난도밸리 교협, 신입 회장에 신바나바 목사 선출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회장 조남인목사)는 지난 14일 에브리데이교회(최흥주 목사)에서 총회를 열고 2022년도 밸리지역을 섬길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신바나바 목사(힐리웃 전도단장), 부회장에는 변은광 목사(밸리생명의교회)가 선출됐다.

총회는 1부예배와 2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조남인 회장의 인도로 변은광 총무의 지도에 이어 신바나바 부회장이 7장 17-21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 강조했다.

신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선지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근본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린 샌퍼난도밸리 교협 총회 ©기독일보

과 뿌리가 제대로 잡혀야 열매 맺는 신앙을 가꿀 수 있다”고 권

면했다. 이어진 회무처리는 마라톤교

회 김신일 목사가 기도하고 전 지승 서기의 회원점명후에 변

은광 총무의 사업보고, 최주철 회계의 회계보고,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례대로 전임회장단이 잠시 모여서 토의한 후 현 신바나바 부회장을 회장으로, 변은광 총무를 각각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신 목사는 밸리지역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밸리교협이 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임사를 전한 조남인 목사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목회자들의 협력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총 2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바 있다.

이인규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수안도원), 조성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세아대), 송경원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 권준희목사(중앙침례교회), 신정민목사(중앙침례대), 유관기목사(생동침례교회), 김관식목사(KCC공동대)

박상원 목사
책의 편자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장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열매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기도문동작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카디오 리모트 케어

(RPM - Remote Patient Monitoring)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십니까? 이제 댁에서 편하게 바이탈을 확인하시고, 담당의사도 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격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와 바이탈 측정 데이터 담당의사진에서 확인 가능!
사용이 편리함! 여행중에도 사용가능!
혈압, 당뇨, COPD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안심하고 누리세요.
의사방문 전후로 측정된 그 모든 바이탈을 담당의사진이 수시로 확인하며, 진찰시 보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PPO 보험 소지자에 한하여 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추가 비용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진이 이 서비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의사진에게 요청하십시오.
의사진과 저희가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
Kardio Inc.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538
Tel) 714-494-1380 www.Kardio.Health email) Info@kardio.health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4**

“과달루페 성모 축일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멕시코(1)”

필자는 지난 12월 10일(금)부터 멕시코 남부 지역 단기 선교를 진행 중이다. 12일이 주일이라 멕시코 시티 북쪽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서 주일에 배를 드리기 위해 숙소를 잡았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늘과 내일 거리가 많이 붙될 것이라고 귀뜸을 해주셨다. 필자는 모르고 갔는데 12월 12일은 멕시코 가톨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과달루페 성모 축제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1531년 12월 12일에 한 농촌 교회 지도자였던 후안 디에고 앞에 그들 원주민처럼 검은 피부색을 가진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있는 그 자리에 성당을 지으라고 계시했다. 그렇게 농부의 헌신적인 순종으로 과달루페 성당이 지어졌다. 그 후 여러 번의 증축을 통해 남미 최대의 대성당이 자리 잡은 것이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과달루페 성모기념 대성당”이 문을 닫았고 2년 만에 열렸다. 필자의 숙소는 성도들이 순례길로 정하고 걸어가는 대성당에서 1마일 떨어진 도로변에 있었다. 그 숙소도 교회 장로님이 과달루페 축제 분위기를 접해 보게 하려는 배려로 정했다.

있는데 그 광장 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멕시코 시골 먼 곳에서 단체로 온 성도들도 있으며 남미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한다 했다. 그리고 12월 12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자정부터 미사가 시작되고 했다. 그러니 토요일 밤부터 축제의 절정인 것이다.

멕시코 시티는 도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이다. 대성당에서 남쪽으로 약 3마일 정도의 큰길에 폭 6미터의 순례길을 도로 한복판에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순례길로 다니고 좌우로는 자동차 길이 있으며 가장 바깥으로 또 인도가 있다. 도로를 계획 도로로 만들어 가히 세계적 문화 도시로 만들었다. 백만 명 이상이 며칠 동안 그 거리를 끝없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매우 질서적이다. 매우 여유롭고 평화로운 행진이다. 필자는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밤을 보내는지 궁금했다. 대성전 앞 광장에 요를 깔거나 종이를 깔고 잔다. 그리고 부족하면 길거리와 골목길 바닥에서 밤을 보낸다. 그들에겐 그것이 이미 예배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인파 사이로 보이는 광경 중에 무릎으로 순례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 이들 곁에는 여러 명이 붙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 어느 남자는 오랫동안 무릎 걸음을 하고 온 것인지 이미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도 있다. 저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저들은 성탄절엔 어떻게 보낼까? 필자는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일 오후에는 가뵈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개신 교회들은 무엇을 하는가 안타까웠는데 주일예배 후 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계속)

오후 4시쯤 숙소로 들어가는 데, 대성당에서 사방 2, 3마일 지점의 도로가 차단되었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통난을 헤치면서 가던지 아예 도보로 걸어 가던지 정해야 했다. 필자는 숙소로 가기 위해 도보로 택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1마일 정도 걸었다. 이미 그때는 인파들이 온 거리를 가득 채웠다. 큰 과달루페 성모의 초상화를 액자로 만들어 앞으로 들거나 등에 지고 그들의 성자인 과달루페 대성당을 향해 끊임없는 인파들이 밀물처럼 몰려갔다. 뉴스 통계로 150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 필자는 그 이상이라 생각했다.

멕시코 시티는 도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이다. 대성당에서 남쪽으로 약 3마일 정도의 큰길에 폭 6미터의 순례길을 도로 한복판에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순례길로 다니고 좌우로는 자동차 길이 있으며 가장 바깥으로 또 인도가 있다. 도로를 계획 도로로 만들어 가히 세계적 문화 도시로 만들었다. 백만 명 이상이 며칠 동안 그 거리를 끝없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매우 질서적이다. 매우 여유롭고 평화로운 행진이다. 필자는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밤을 보내는지 궁금했다. 대성전 앞 광장에 요를 깔거나 종이를 깔고 잔다. 그리고 부족하면 길거리와 골목길 바닥에서 밤을 보낸다. 그들에겐 그것이 이미 예배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축제일은 내일인데 왜 토요일부터 이렇게 몰려가는가 숙소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미 수요일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대성전 앞에는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앞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멕시코 시골 먼 곳에서 단체로 온 성도들도 있으며 남미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한다 했다. 그리고 12월 12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자정부터 미사가 시작되고 했다. 그러니 토요일 밤부터 축제의 절정인 것이다.

축제일은 내일인데 왜 토요일부터 이렇게 몰려가는가 숙소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미 수요일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대성전 앞에는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이

신약성경의 배경 “신약의 배경이 되는 요세푸스의 기록”

예수님 삶에 관한 기록이 사복음서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관한 성경 밖의 참고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과 동시대에 기록된 문서 중에 복음서 내용을 다루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굳이 찾아보면 신약성경보다 조금 늦게 기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의 자료와 수토니우스(Suetonius)의 기록, 그리고 유대 탈무드에 예수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신약성경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는 미흡합니다. 이유는 너무 단편적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각 분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비하면 요세푸스의 역사 자료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신약성경과 동시대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신약성경 참고 자료입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어머니 혈통은 하스몬 왕조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하스몬 왕조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 하스몬 왕조 시각으로 당시 역사를 기술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종교인, 정치인, 군인 그리고 역사가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유대인 동포 구명 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64년 네로 황제 시절 반로마 폭동을 주동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유대인들을 구명활동입니다. 네로를 움직이기 위해 네로의 부인 포피아 사비나를 만나 그녀를 설득하여 동포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라고 불렀습니다. 요세푸스는 “요셉”의 헬라식 표기였고, 플라비우스는 요세푸스를 지원했던 로마 황실 가족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한 로마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반란(제1차 유대전쟁)에서 유대인 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요타파타 마을을 방어하는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최대한 베스파시아누스군의 진로를 막는 전략을 써서 수십 일 동안 베스파시아누스군을 붙들어두었지만 결국 전력의 한계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 여러 분파를 두루 거쳤습니다. 사제 출신으로 하스몬 혈통이었던 그는 원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둔적 영성을 지향한 에세네파를 거쳤고 나중에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이때 요세푸스와 동료 지휘관들은 자살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살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요세푸스와 한 병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 병사를 설득해 로마군에 투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요세푸스를 배신자로 만드는 사건이고 요세푸스의 평생을 괴롭히는 사건이 됩니다.

역사가로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리고 초대 교회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하기에 적합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지 몇 년 후인 A.D. 37년에 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종교, 성전, 신앙의 절기들,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구전과 문서들을 종합하여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 총독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갈릴리 지역에서 잠시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예수님의 비유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요세푸스는 바울과 초대 교회에 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바울이 처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상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는 로마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기독교 현상을 소개할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요세푸스 자료는 신약성경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 교회 상황을 소개하는 훌륭한 역사 자료입니다.

요세푸스 자료는 초기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을 폭넓게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등등을 언급합니다. 이런 자료는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역사성을 확증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세푸스의 작품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 (계속)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북녘기아생도들의 순교증언과 해외디아스포라들의 동족사랑의 영화제작 추진, 하나님의 복음통일을 목표로 전문영역에서 네트워킹된 기드온동족선교(GBMW)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위 책에 소개된 그분들의 희생과 순교는 복음통일이 주님의 계획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독일보 텍사스지사 창간 인터뷰 1 - 휴스턴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

“아버지와 같이 품는 마음이 텍사스 목회 33년을 이끌어”



휴스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이재호 목사 ©기독일보

미주 기독일보는 텍사스 지사 창립을 맞아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등 텍사스 지역 주요 한인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번째 순서로 휴스턴중앙장로교회 담임이자 현재 NCKPC 총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호 목사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이목사는 1988년 휴스턴중앙장로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이후 33년째 교회를 이끌고 있다. PCUSA내 한인교회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인 목회자들이 속한 NCKPC를 행정기관인 코커스로 승격시켜 합법적이고도 중립감 있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과, 한인 2세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주류 교계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휴스턴 교계의 원로급 목회자로서 휴스턴 한인교계 연합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PCUSA내 한인교회들의 수 장으로서 어깨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 여전히 한인교회들은 결혼정의와 관련해 교단이 언제든 바른 결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인교회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달라.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PCUSA가 결혼 정의를 바꿨다

기 보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두 인격체의 결합'이라는 부분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결혼의 관한 정의 부분은 개교회의 결정에 우선권을 줬다. 그래서 교단이 개교회의 결정에 간섭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만일 지역 교회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개교회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식 등을 거부해서 고소당하거나 하는 경우 총회에서 오히려 지역 교회를 위해 돕게 된다. 이런 총회적 지원은 다른 교단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단의 올바른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결혼정의에 대한 논란 당시 미디어에서 PCUSA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냈는데, 이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다. 약 5% 정도의 교회가 복음주의 교단인 ECO로 옮겨갔다. 옮겨간 교회들도 대부분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었다. PCUSA에 속한 한인 교회들 또한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도가 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안수집사 20가정 정도가 당시 교회를 옮기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30년 이상 휴스턴 지역의 한 교회를 맡아 장기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가.

신비스러운 것이 목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됐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목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제가 특별히 한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 저는 목회에 있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후배들, 특히 30-40세대는 이미 저를 롤모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배우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 사실 저는 이민 2세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1세대 목회자인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다 떠나가셨고, 우리 세대 중에 3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이 잘 없다.

그 비결이 첫 째는 우리 교인들이고 둘째는 장로님이다. 우리교회 장로님이나 저를 받아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오랜 목회의 비결은 정말 이것이 전부다. 물론 목회자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교인들도 많이 참고 인내해줬다. 저 같은 사람을 인내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33년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회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나.

휴스턴중앙장로교회 사역의 요소를 꼽으라면 '자손', 그리고 '선교'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교회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해마다 예산의 20% 이상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자손'은 자녀교육을 의미하는데 프리스쿨 사역이 활발하고, 이것이 교회가 오래됐지만 굉장히 젊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제 목회 철학은 '실교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휴스턴 지역 목회자들의 어린 자녀들 중 상당수가 휴스턴중앙장로교회 프리스쿨에 나오고 있는데, 자녀교육 부분에 있어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는 선교적 마인드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선교를 일부러라도 많이 다니는데 태국에 선교를 갔을 때 프리스쿨 사역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 교회 건축과도 시기가 겹치는 2010년대 초반이었다. 그곳을 갔더니 부모들이 대부분 도시로 가고 아이들이 할 아버지 할머니에 의해 키워지는데, 보통 사찰로 보내서 애들을 돌보고 있었다. 3-4명씩 사찰에서 자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에 젖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역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다.

또 하나 학교사역의 동기부여가 됐던 계기는 2014년 말레이시아 선교사대회가 있을 때 목격한 장면이다. 현지의 한인 자녀들이 말레이시아 학교에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무슬림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기에 학교를 최고의 시설로 갖춰서 무료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고 또 최고로 좋은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

을 보고 교회가 학교사역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성인이 된 후 교회에 계속 남는 2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2세대를 위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었나.

보통 한인교회에서 2세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2세 목회자들에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회의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했다.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영어권을 다 같이 하나로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로 새롭게 갈 때 아이들이 바뀐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5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대학부 학생들이 중등부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에 불만도 표했지만 지금은 서로 하나로 융화돼서 잘 가고 있다.

-교회가 해외선교 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선교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먼저 노인평생교육기관인 상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홈리스 사역과 요양원 사역,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등을 성실히 해나가고 하고 있다. 따뜻한 텍사스 지역의 특성상 노숙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게는 50명 가량이 교회 주변에 와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거나 종전할 곳을 찾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교회 시설을 쓰라고 했다. 너무 찢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샤워도 하도록 해주고 뒷정리를 제가 깨끗하게 하기도 한다. 그것이 노숙자사역이 교회의 선교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었던 이유다.

이창한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상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비사,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케를리. Cell 714.345.4989.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을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프로지 골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인정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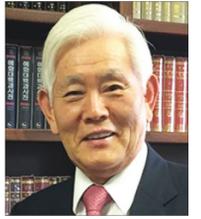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에서 한 애기의 출생을 인해 역사가 나누어 졌던 일은 없었다. 그런데 출생 과정부터 초라하게 보이는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갈라 놓았다. 그 역사가 바로 BC 연대와 AD 연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BC 연대는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 오시기전까지의 연대를 말하고 AD 연대는 라틴어로

Anno Domini(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의 해)로 통용되고있는 주 후의 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출생 700여년 전에 활동하고 있던 지성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라는 애기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었다(사 7:14)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던 미가 라는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가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 할 것이라는 장소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었다.(미 5:2) 그렇게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고 되어 왔던 예수는 오랜 시간

이 흘렀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던 하늘의 메세지도 중단이 되고말았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혼탁해 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윤리도 도덕도종교도 타락되어 가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암흑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 자그마치 그 기간이 400여 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무렵에 추운 겨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순박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

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다.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Good news of great joy) 이라고 선포해준 것이다(눅 2:8-11)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왕이나 고관대작 이나 권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 지지 않고 낮고 천한 신분 이었던 목자들에게 전해 졌을까? 그 어린 아기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놀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다(눅4:18-19)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회장

이날이 바로 성탄절 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춤추려 들었던 마음 문을 활짝 열고오신 아기 예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 보내 드리자. 이런 일들이 성탄절기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성탄축사

성탄의 역설과 교훈



이상명 총장
미주장신대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역설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때입니다.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역설 그 자체입니다. 성탄절은 약함으로 강함을, 부활로 죽음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역설의 지혜를 배우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간 역사를 파멸로 이끄는 탐욕을 무력화시키는 강림절의 역설에 기대어 우리가 묵상한다면 기적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강림하신 일이 가장 큰 역설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천상과 지상, 영원과 순간이 한 인격체 안에서 만나 인류 역사로 이어지는 단회적 사건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달이 12월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역설을 제하여 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역설이 사라진 신앙은 더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역설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고전 1:27). 해가 갈수록 성탄의 계절이 지닌 영적 의미는 퇴색하고 상업적 의미가 덧칠되는 것은 성탄절이 지닌 역설과 반전의 의미를 세상이 망각하기 때문이거나 한갓 신화로 여겨 거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의 역설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소외된 곳,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반전에 있습니다. 그 반전과 역설 속에서 인간의 모

든 사된 욕정과 탐욕은 무너집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혼돈, 압제와 절망의 어둠이 드리운 시대 한복판에 태어나셨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에 다름 아닙니다. 그 아기가 세상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곧 반전이 역설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그 아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뒀고,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의 화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는 인간 역사 속 가장 크고 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던지는 헌신과 희생으로 병

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도록 북돋워주십니다. 땅의 비루한 욕정에 불들려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 땅의 가치와 질서 속에 깃든 악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전복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하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는 바위틈에 뿌리내리고 사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강인함을 봅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뚫는 겁니다. 딱딱하고 강한 것이 무르고 약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생명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에 가까운 것일수록 부드럽

습니다. 부드럽지만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영혼은 맑아집니다. 천국 주권자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합니다. 성탄절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부터 큰 선물을 그제 받았으니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그제 나눠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지고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복된 선물이 되는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2022년 상반기 일정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정립자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학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사적 베스트 셀러, "별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별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좌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제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오렘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랍어 수에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반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플렉스내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를 의미합니다. 오렘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이 2월, 3월에는 김승학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야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요르단 (4박 5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오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온천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항이동

두바이 (3박 4일)

일차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몰, View at the Palm, 속메디닛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히잡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엘림



엘리아의 동굴



금송아지 암각화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을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갈'이라는 뜻의 희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

성탄축사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2021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절기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손상 당한 독자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력 상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는 종종 “대강절”(待降節)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대강절은 대림절(待臨節), 강

림절, 대림 시기로 불리는데, 이는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으로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Adv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온다”는 의미의 단어 “아드벤투스”(Advent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한 해의 교회력이 대강절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연말의 성탄을 기념할 뿐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이며, 대강절 제1주일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의 주일로 시작되는데, 올해는 이미 11월 28일 주일이 대강절 첫 주가 되었고, 성탄 주일을 포함하여 4주에 이르고 성탄절 이브에서 끝납니다.

대강절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구세주를 향한 유대인의 갈망과 구원 및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묵상해봅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질 몇 가지 묵상의 길잡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값진 사랑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탄절의 기다림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소망의 진정한 완성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므로 승리에 이르게 됨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대강절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취되는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성탄절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오십시오.” “하나님, 준비가 아직 아니 되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고, 아직 진행 중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은 거듭났는가 질문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성탄절을 기다림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

장하고 신랑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강림을 기대하는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은 우리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회복시키는 때이므로 뜨거움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으면, 더욱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은 아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 선교가 주의 재림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성탄축사

위대한 역사의 작은 시작



김정진 목사
기뵈우리교회

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초라한 시골 처녀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그녀는 많아야 16세의 나이, 정혼한 요셉이란 남자와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새 가정을 꾸미는 꿈에 젖어있었던 마리아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는 부적합한 선택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는 명문 가문에 속한 학식

과 재색을 겸비하고 율법 준수에 유수한 귀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 놓으시고 하필이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의 한 비천한 소녀를 택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도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나사렛은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은 무역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유대사람들에게 부정확한 지역으로 무시와 차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비천해 보였던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주위 열강들 대신에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실 때 유대의 지도자급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중 당시 농부나 목동과 같은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비천한 신분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가장 연약

하고 낮은 곳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메시아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 마리아는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에 대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초라하고 작은 모습만을 바라보았다면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

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의 초라한 자아상으로 인해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선택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자신감에 넘치는 순종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느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끄러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내가 감당할 사명임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나타나기보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냥 그렇게 묻혀서 그들이 바라는 행복을 누리며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거

기서부터 탈피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브랜드를 입고 마시고 타고 다니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화 거리를 찾으며 뭐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대중 안에서 묻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는 삶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유혹적인 어둠의 한 부분이 되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죽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처녀,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고백했습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연약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CDTV 미주기독일보

미주기독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내세례) 오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내세례) 오전 11:30 오후 6:20(토)
대학 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자를 책임지며, 이만(2)자를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이침달음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화-토)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정신 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선양기도회 오후 8:00
만민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자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로 세울 법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 (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 1부 오전 9: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EM예배 (2부)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밭에 빛이오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제들 OC제들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중등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 오후 1:30
유년부 영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월 7:45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 오전 5:30/토 오전 6:00
2381 N. Orangeport Ave., Fullerton, CA 92633
16514 Haskell St., Northridge, CA 91325 (818)863-5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과(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금요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美 UMC 목사 '드래그퀸' 으로 방송 출연...교단서 면직



크레이그 듀크 목사. ©HBO 영상 캡처

미국 연합감리회(UMC)의 한 목사가 최근 방송에서 드래그퀸(여장남자)으로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버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였던 크레이그 듀크는 지난 12월 1일 직무에서 해임됐으며, 마크 디킨 목사가 그 대신 임시로 교회를 맡게 됐다.

듀크 목사와 가족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교회 사택에서 지낼 수 있지만, 담임목사로 섬길 수 없으며, 급여도 삭감됐다. 듀크 목사는 HBO 리얼리티 시리즈 'We're Here' 11월 8일자 에피소드에 등장한 후 논란이 됐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는 '드래그 마더' 유레카 오하라와 함께 케사의 노래 'We Are Who We Are'를 불렀다. 노래를 하기 전에는 청중들에게 사랑에 관한 설교를 전했다.

이 리얼리티 시리즈는 3명의 유명한 드래그 아티스트들이 전국의 작은 마을을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드래그퀸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 단체인 '리버시티 프라이드'가 크레이그 목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킨 목사는 최근 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시 목회자로 나서게 된 것에 긍정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다"고 했다.

디킨 목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

기에 뉴버그연합감리교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해하고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좌절하고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나오라"고 했다.

듀크 목사와 가족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교회 사택에서 지낼 수 있지만, 담임목사로 섬길 수 없으며, 급여도 삭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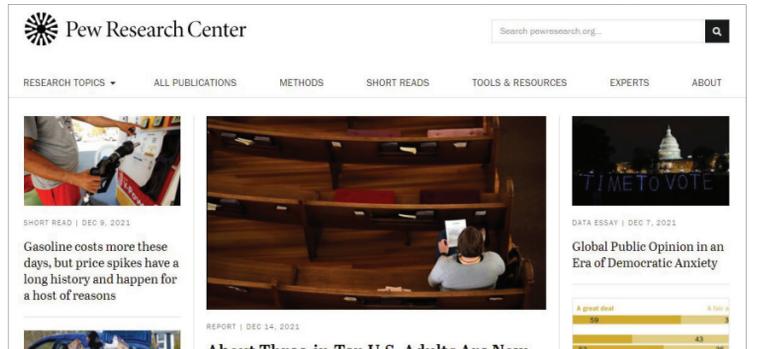
인디애나 연합감리회 연회 남서부 지역 감독 미치 기젤만 목사는 지난 11월 26일 듀크 목사가 해임되거나 정직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한을 교인들에게 보냈다. 그는 "듀크 목사는 현재 교구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기젤만 목사는 "그는 목사 직무에서 면직돼 있는 동안 우리 연회의 지도력 개발 이사인 트림블 감독과 제가 모니터링하는 갠신·성찰 및 회복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젤만 목사는 "우리의 소망은 크레이그 목사가 지역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의 수많은 은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뉴버그연합감리교회 강단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가톨릭 68%, 주류 기독교 56%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미국 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 ©퓨리서치센터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가톨릭 신자들과 주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소년에게 고인이 된 무신론자 아버지가 여전히 천국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종교적 논쟁의 불씨를 지핀 지 3년 만에 실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6,485명의 전국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처음으로 삶의 의미, 고통의 목적,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많은 삶의 변화들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후세계와 관련해 대다수 미국 성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두 믿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천국만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천국을 믿는다"고, 62%는 "지옥을 믿는다"고 했다.

모든 기독교 집단의 압도적 다수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지지했다. 역사적으로 흑인교회 및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인들이 주류 개신교이나 가톨릭 신자들보다 지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 성인 응답자의 39%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복음주의자들의 21%, 역사적으로 흑인교회의 31%, 가톨릭 신자들의 68%, 주류 개신교인들의 56%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의 고통과 관련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고통이 주로 사람들의 행동에 기인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흑인 및 복음주의 기독교인 대다수는 "사탄이 인간의 고통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응답자의 68%가 "인생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고통은 사람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강혜진 기자

英 교계 지도자 5백명 “전환치료 금지법안 반대”

영국 전역에서 5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전환치료 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형사 고발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Unsplash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들은 제안된 금지법이 발효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위해 성을 예비하셨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의 결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의 형태로 제안된 법안이 폐기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며 정부에 복종하고 지원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성(性)과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가르침을 포함해 정통 기독교 사역 관행들이 사실상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계속할 것이지만 깊은 슬픔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여전히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공개서한은 금지법에 대한 정부 협의가 종료되기 며칠 전 발송됐다고 CT는 전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우려를 알리기 위해 정부 협의에 참여하도록 촉구받고 있다.

신학자이자 영국 성공회 총회 회원인 이안 폴 박사는 “현재의 제안은 잘못 고려되고 있으며 잘못 인식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협의 문서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강조된 많은 문제는 이미 불법”이라며 “전환 치료라는 용어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제안서는 실질적인 관심과 명확한 생각보다는 이념적 의제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 사역이 범죄화되고 종교를 포함한 인권이 짓밟힐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요크 트리니티 처치의 목사인 매튜 로버츠 박사는 성과 젠더에 대한 표준 기독교 가르침이 제안된 금지령에 따라 범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정상적인 사랑의 기독교 사역을 범죄화하는 한편, 트랜스젠더 이념이 가하는 끔찍한 피해에 휘말린 젊은이들을 돕는 것을 막는 법안을 고려하는 것 같다”라며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치료’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안서 초안은 너무 심하다. 기본적인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무지로 인해 완전히 표준적인 기독교 가르침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름으로 범죄화될 것”이라고 했다.

어피네티 교회 네트워크 이사인 그레엄 니콜라스 박사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특히 실무자, 목회자, 청년 사역자, 상담가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치료에 관한 이 법이 그들의 일과 일상, 사람들과 하는 매일의 대화, 격려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전환치료)법을 제정하려는 이들의 명시된 목표는 성경적 가르침의 성윤리 관점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등 모든 종류의 격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코로나로 2년간 관광객 없어... 베들레헴 기독교인들 생계 위협”



베들레헴에 소재한 예수님 탄생기념 교회(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wikipedia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들레헴 기독교인들은 의료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FHL(Friends of the Holy Land)이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예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전염병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지난 2년간 관광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개월 동안 관광과 순례 산업에 종사하는 가정들은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등록된 에큐메니칼 자선단체인 FHL 대표 브렌든 맷칼프는 “저축이 고갈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외상으로 음식을 구매하거나 친구 혹은 푸드뱅크에 의존해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음식이나 필수품과 관련된 비용 외에도 의료비는 베들레헴 가정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고 전했다.

FHL은 매일 약 30~40명을 돕고 있으며 현재 긴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

해 두 명의 지역 기독교 여성을 사회 복지사로 고용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자선 단체의 월 필요 예산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9천파운드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맷칼프는 기독교인들이 향후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고 예수님의 탄생지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처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지난 20개월 동안 FHL의 주요 초점은 긴급 지원 제공이었다. 맷칼프 대표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성지에서 기독교인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서 직업을 배우도록 영감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멘토링하고, 집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그들이 가족을 만들고 성지에 머물도록 돕고 싶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살고 일하고 생존할 수 있고 이민할 필요가 없다는 위안을 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트렌스 조은교회
 주님같이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의 은혜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말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1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사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대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88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사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You Tube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김철민 장로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춘준 담임목사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이주철 담임사관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11:00
EM 예배 1부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7:30
새벽 기도회 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김현수 담임목사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30
EM예배 오전9:00
금요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l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수요예배 7:00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김영규 담임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08:50 AM
주일예배 2부 10:45 AM
수요예배 07:30 PM
새벽예배(화~금)05:30 AM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셉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CA90710
T:(310)326-0300

이황영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남가주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입학처: 770-220-7905, admissions@gcuniv.edu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6:0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윤 목 담임목사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남재헌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최순길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 훈 담임목사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1652 w. 205th St, # 1, Torrance, CA 90501
T. (310) 404-6219

Kim Young Koo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씨미밸리침례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예배 1부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반채근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5:30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519 S.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지용덕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Only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20분)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갈릴리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T.(323)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 새생명교회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714) 615-9191

민승기 담임목사

세리토스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 (714)262-1428

김기동 담임목사

밸리주하나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 토 오후 5:30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T. (818)794-0691

오정택 담임목사

멜리데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유튜브 방송)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고귀남 담임목사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본당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브리지교회

주일예배 오전11:15
 영어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1067 East Badillo Street Covina, CA 91724
 T.(626)339-6177

반진석 담임목사

찬양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30
 EM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216-3700

김성대 담임목사

한길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영유아/유년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오전 10시 50분
 새벽예배 평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새벽예배 토 오전 6시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박찬석 담임목사

그레이스 실버 미니스트리 센터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15144 Genova Ct., Chino Hills, CA 91709
 T.909-802-5857 gsmc1004@gmail.com

대표: 최병수 목사
 Daniel Choe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안병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깐!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choonghyun.org

충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예수마을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00
- 영유아부, 유초등 오후 1:00
- 중고등부 오후 1:0
- 청년부 오후 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토기장이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30
- 영어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임경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
T.(310)738-0485

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7:30
-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 주일예배 3부 오전11:40
- EM(Holy Wave) 오전10:00
-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후2:00
-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 토요연합예배 토 새벽6:30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909-590-3722
Email: eastsarangweb@gmail.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Rev.Dr.Eunsung Park

나성영락교회 예배 안내

주 일 예 배	1부 7:30, 2부: 9:00, 3부 11:00 / 본당 및 온라인
영 어 예 배	주일 11:00 / 새교육관 채플
청 년 예 배	주일 오후 1:30 / 본당
능력의수요강해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본당
온교우토요기도회	토 오전 6:00 / 본당
아 동 교 육 부	주일 11:00 / 교육관
중고등대학부	주일 11:00, 금 오후 7:00 / 교육관, 은혜관
주일한국학교	주일 1:00 / 교육관
토요한국학교	토 9:00~1:40 / 새교육관, 교육관
AWANA(K-6)	주일 2:00~3:30 / 새교육관 GYM
특수사역부	주일 10:00~1:00 / 소망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LA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우영화 목사 총무: 박선호 목사

- | | |
|------------|--------|
| 선한청지기교회 | 송병주 목사 |
| 늘푸른교회 | 박선호 목사 |
| 아름다운교회 | 고승희 목사 |
| 유니온교회 | 김신일 목사 |
| 할렐루야한인교회 | 송재호 목사 |
| 나성한미교회 | 신용환 목사 |
| 선한목자교회 | 고태형 목사 |
| 호산나교회 | 라세염 목사 |
| 주님의교회 | 김병학 목사 |
| 행복한 교회 장 | 경훈 목사 |
| 남가주 주님의교회 | 김낙인 목사 |
| 동부사랑의교회 | 우영화 목사 |
| 브리지교회 | 박진석 목사 |
| 좋은비전교회 | 최준우 목사 |
| 나성교회 | 정동석 목사 |
| 미주세한교회 | 주 신 목사 |
| 하시엔다한인감리교회 | 이재석 목사 |
| 글로벌선교교회 | 김지성 목사 |
| 호민교회 | 이정석 목사 |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소속 교회 및 기관 명단

- 갯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
- 남가주 헬로쉽 교회 (박혜성 목사)
- 두란노 교회 (손상헌 목사)
- 백두암 강변 선교회 (박종길 목사)
- 성경성구 전달사역 선교회 (최열리 목사)
- 언약 교회 (이상호 목사)
- 에덴 선교 교회 (윤석길 목사)
- 인랜드 교회 (안 환 목사)
-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 (조강왕 목사)
- 한울림 교회 (류수열 목사)
-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최병수 목사)
- RepairServant Ministry (마원철 목사)



은혜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45
-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10:30
- 2부 예배 오후 1:30
- 성경 공부 오후 3: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축 성 탄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 주일예배 3부 오전 11:15
- 수요예배 오후 7:30
- 중고등부 오전 11:15
- 한어부 오후 1:00
-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 EM예배(1부) 오전 9:00
- EM예배(2부) 오전 11:00
-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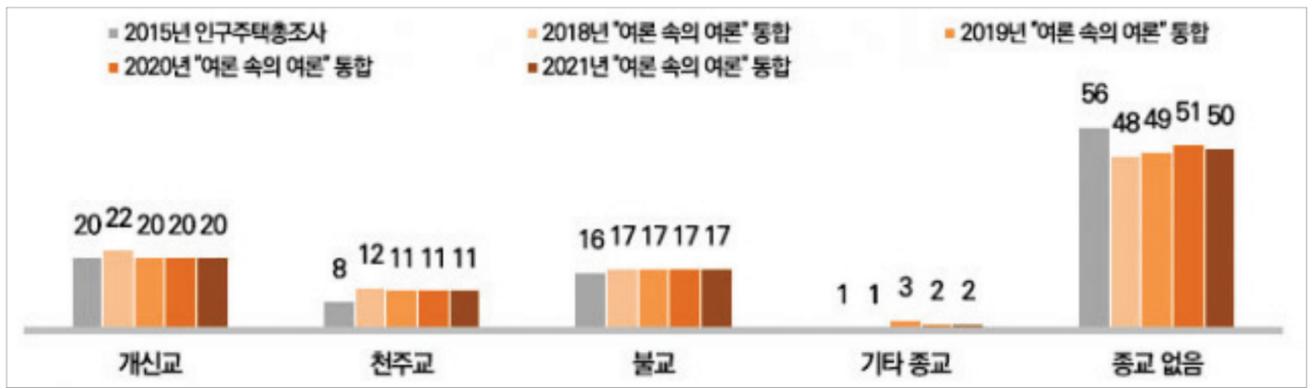
한국 종교인구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 50%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1년 전 신앙을 갖고 있던 개신교인 10명 중 1명은 현재 신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와 비슷하고 천주교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매년 종교 현황을 조사해 온 한국리서치가 [종교지표-2021년]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설문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응답자 1,000명(개신교인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 종교인구 비율조사는 1월부터 11월까지 23회 걸쳐 진행됐다.

2021년 종교인구 비율은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종교 2%, 종교 없음 50%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18-29세 응답자 중 67%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했다. 반면 60세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이상 응답자 중 '믿는 종교가 없다'고 한 비율은 34%로, 18-29세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25%로 전체 평균(20%)보다 높았다.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15%)은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여성(54%)이 남성(46%)보다 높

았으며, 개신교는 전체 여성 중 22%, 전체 남성 중 19%가 믿는다고 답했다.

2018년 이후 종교 인구 추이를 보면, 주요 3대 종교 모두 큰 변화 없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개신교 신자는 전체의 20%, 불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11%로 3년간 동일하다.

현재 믿는 종교는 2000년 이

전부터 믿고 있다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개신교는 2000년 이전부터가 63%, 2001년~2010년이 12%를 차지했다. 40대 이후부터는 새롭게 종교를 믿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부터 믿어왔던 종교를 계속해서 믿는 경향이 높았다.

1년 전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 12%는 현재는 믿는 중

가 없다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 중 8%는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2%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했다. 1년 전 불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는 12%가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2%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송경호 기자

이찬수 목사, "5천 명 이하로 안 줄면 사임" 약속 지키길 것

분당우리교회 12일 주일예배 설교서 언급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교회들을 분립한 후 일정 기간 안에 분당우리교회의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도 수가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구체적인 교회 분립 계획을 처음 공개했던 지난해 2월 23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회 분립의 결과로) 분당우리교회는 주일 출석 5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분립 과정에서) 제가 걸림돌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강제 안식년'이라고 이름을 정해봤다. (제가) 최대 1년 정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없어질 것"이라며 "그리

고 복귀하는 날 기준으로 그 1년 뒤까지 5천 명 이하로 숫자가 줄지 않으면, 사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건 여러분의 자유"라며 "(분립된) 30개 교회로 가기 싫다면 동네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된다. 이도 저도 싫다면 그냥 (분당우리교회에) 남으면 된다. 5천 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것도 제 자유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12일 주일예배 1부 설교에서 이에 대해 "아니 아직 10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설마 그만두시겠냐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며 "하나님 앞에 정말 1퍼센트의 가식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 드린다.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고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2일 주일예배 1부에서 설교하고 있다. ©교회 영상 캡처

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기간에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 목회하려고 막 무리수를 두어서 5천 명 이하로 줄이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5천 명 이하로 줄

하는 것"이라며 "종이 주인에게 약속한 걸 그렇게 쉽게 바꾼다구요?"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물론 2년 뒤에, 원래는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갖기로 했고 이제 2년차를 정리해서 2년 뒤에 5천 명 이하로 안 줄면 제가 사임한다 그랬는데, 내년에 안식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글썄, 하반기에 가서 좀 할 수 있을까요"라며 "제가 2년 뒤에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을 경우) 그만둔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교회를 막 엉망으로 해서 되겠다. 그만두기 전날까지 목숨걸고 목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서 제 후임으로 좋은 분이 와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은 제가 할지 후임이 할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울림써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e Ave. 뉴서울 호텔 2층면)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환원율이 초진부터 수술 시후관리까지 진보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석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선교의 다양성

빌립보서 4:1-13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선교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정통한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진리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복음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에서 묵회하게 하신 기간 동안에는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계속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늘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영생의 벽찬 소망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 자기들같이 소망없이 살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힘쓰고 애쓰며 선교하는 사도바울의 선교성과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힘있게 뒷바라지하는 일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깊이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써고 수고했던 1년 반동안의 사역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모습이었던 사실을 본문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와 목자를 세우셔서 많은 양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천국에 가도록 영적인 소망 가꾸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지옥 길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생명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들어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생활을 하되 교회 가는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생각과 말,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로는 안 믿을 수 없도록 목자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화인 맞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2:5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완악한 심령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를 정통하게 깨우쳐주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간다면 더욱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으며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힘을 실어 주어서 구령의 성과가 늘어나도록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하늘 소망의 후사로 구원얻게 하는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나가 직접적으로 성경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초등학교도 못나왔지만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니 그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달하고 싶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뿌리치고 받지도 않고 때로는 받았다가 땅에 버리고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가서 씨를 뿌려라 씨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늘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늘 파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마늘 파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얻을 수 있도록 교회 나가보세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늘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장사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는거야”하면서 저

리 가라고 했습니다. 이말에 이 여집사는 “별꼴 다 보겠네. 예수믿고 천당에 가라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랄이야”라고 하니 그 마늘 팔던 아주머니는 화가나서 달려들어 머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여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그 시장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을 지나다보니 작년엔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마늘 장사 가게 앞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전도하려고 보니 그 가게 금고 옆에 성경, 찬송이 포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봐요”하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녔냐고 물으니 작년 이맘때쯤 어떤 미친여자가 “천당가라는데 왜 지랄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도 귀에서 맴돌고 잠도 못 자게 울려서 집 근처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 다니지 1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여집사님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군대의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잡아온 어린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엘리사에게로 이끌었고 결국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볼 때 비교도 안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고침을 통해 온 아람나라가 알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방법의 다양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같이 그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썩어나고 열매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할 형편이 못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믿는 진리의 신령한 기쁨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고 명분이나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활력소가 된다”는 고백과 함께 신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의 다양성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역술하게 끌려갔던 그 소녀의 선교사명 의지를 본받아야 하며, 또 그 여집사님은 무식하게 전도하며 욱도 했지만 그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썩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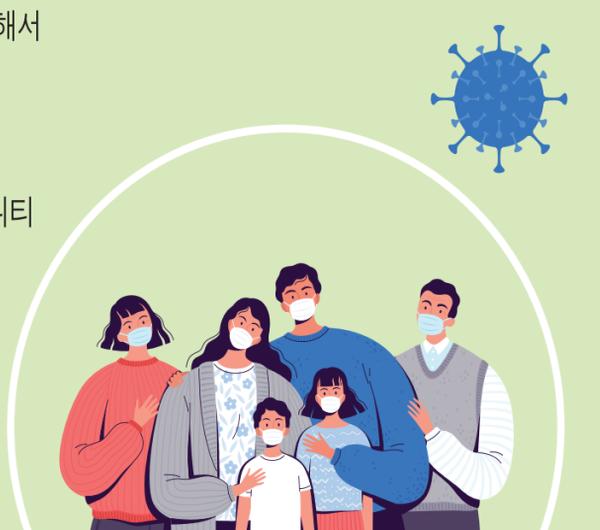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영화 <지옥> (3)

<지옥>은 기독교 주요 교리를 어디까지 비틀었나

심판도 허술, 대속은 예수 아닌 가족들 몫 주장
좀비물과 왜곡 등 비합리적 서사로 부활 희화화
초자연적 신비와 초월, 무가치하게 취급 유물론
신앙 효과적 해체? 감독 자신 부족한 인간 이해

◆기독교의 패러디: 원죄, 대속, 부활을 비틀기

<지옥>의 후반부 에피소드 세 편은 새진리회의 창시자 정진수(유아인 분)가 지옥행 형벌을 받고 죽은 이후의 사건들을 다룬다. 방송국 PD인 배영재(박정민 분)와 그 아내 송소현(원진아 분)의 갓난아이 튼튼이에게 지옥행이 고지된 일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새진리회의 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고지를 두고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형벌 집행일이 다가온다.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지옥 사자들은 정해진 대로 아기를 죽이려 하다가, 아기를 보호하려 감싸안은 부부 두 사람을 대신 죽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드라마 초반부에 시연을 당해 죽은 박정자(김신록 분)가 타버린 해골 상태에서 원래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지옥>의 첫 번째 시즌이 막을 내린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 후반부 서사는 원죄, 대속(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세 핵심 개념을 기괴하게 비틀어 표현한다.

이러한 패러디의 의도는 명백하다. 이 세 개념이 결코 인간들에게 납득할만한 자기 이해를 선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우선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기에게 지옥행 고지가 주어지면서 그 부모에게는 절망스러운 고통이 주어지고, 새진리회와 세간에는 신의 뜻에 대한 회의감과 혼란이 일어난다.

이는 원죄에 대한 믿음이 인간들에게 결코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연상호 감독의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아기 튼튼이에게 형벌이 시행되는 날 아기가 아니라 두 부부가 대신 죽는 장면은 신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

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대속은 예수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족들과 정의로운 이들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 준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타인을 해하거나 범법자로 산 것이 아닌 박정자의 뜬금없는 부활은 아기 튼튼이가 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형벌에 별다른 기준이 없는 데다가, 그 형벌을 잘못 내린 배상 방식 또한 원칙이 없고 기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옥>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개념과 요소들을 빌려와 기괴하게 비틀어 표현함으로써, 원래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의 구조와 체계를 허물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 회의감 넘치는 패러디 기법은 포스트모던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짜여진 '구조'가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우연성과 개별성을 억압하므로, 해체와 분쇄를 통해 삶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포스트 구조주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지옥>은 이런 포스트모던 예술의 특성들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작품이다.

서사에는 별 논리가 없고, 장면들은 기묘하고 흥쾌해 정감이 가지 않으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음산하고 몽환적이다.

이와 같은 작품에 인용되는 기존의 가치나 가르침들은 그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옥>은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덧입힐 주된 타겟으로 기독교의 원죄, 대속, 부활 신앙을 설정하고 있다.

◆기독교의 패러디: 원죄, 대속, 부활을 비틀기

그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패러디는 연상호 감독판 반종교 정서의 최일선에 놓여 있다.

그를 대한민국 상업 영화계의 유력한 흥행감독으로 만들어 준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작품이 바로 좀비 영화인 <부산행>이다. 좀비물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왜곡된 방향으로 패러디하는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 장르이다.

원래 좀비는 서인도제도, 특히 아이티에서 발흥한 부두교 숭배의 산물로서, 죽은 시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저주에 걸린 것을 말한다.

부두교 신자들은 이 술법에 걸린 사람이 백치가 되어 주술사의 뜻대로 조종을 당하게 된다고 믿었다.

미국의 B급 호러영화 감독들은 이 부두교 전설을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합쳐 좀비를 시체가 살아난 것으로 재정의했다. 오늘날 좀비 장르는 그렇게 탄생했고, 연상호 감독은 이 좀비 장르를 한국 영화계에 들여와 최초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가 좀비 장르에 눈을 돌린 것은 독립영화 감독이었던 시절 그의 반종교적 작품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근래의 좀비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비는 삶과 죽음, 생체와 시체, 인간성과 동물적 본능이 반씩 뒤섞인 끔찍한 혼종으로 묘사된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부활은 크나큰 행복이지만, 오늘날 대중문화가 가르치는 부활은 죽어야 할 인간이 죽지 못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부자연스러움과 고통으로 가득차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오직 현실의 신체적 삶 단 한 번밖에 없으며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망이라는 실존철학적 인간 이해를 반영한다.

<지옥>은 좀비 장르의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묘사한다. 그렇지만 그 의도는 좀비 작품들과 다르지 않다.

<지옥>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허황된 바람이며, 또한 이 초자연적 현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치더라도 인간의 자연적 운명을 역행하는 것이기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에 가까울 것이라는 연상호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국 <지옥>이 말하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모든 내세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의 삶을 그 본연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종교들이 초자연 영역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허구적 교설이나 실증적 근거가 없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옥>은 지옥 형벌을 고지하는 천사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자 등 초자연적 존재자들을 이야기의 출발점 삼아 서사를 전개하지만, 실상 신비와 초월의 영역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충실한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 신비와 초월의 영역을 완전하게 배제하려는 <지옥>의 반종교적 메시지는, 인간 이해의 핵심 요소를 놓친 협소한 견해에 불과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없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나름의 신비와 초월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존재적 가능성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우주 만물을 포괄하

는 존재의 무궁한 크기와 깊이에 대한 경탄의 감정일 수도 있다.

혹은 인간 개개인이 자기 삶의 행실과 마음 속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느끼게 되는 형언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그로부터 불가해하게 시작되는 도덕적 삶에 대한 염원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영혼 심층부에 새겨져 있는 본성으로서, 기독교 신앙은 이를 영혼이 받아들이는 영감의 발현 증거라고 본다.

그 외 각각의 종교들도 나름의 방식대로 영감 혹은 영성 개념을 통해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초월적 측면을 이해하려 한다.

이는 인간이 도무지 파헤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하나님과 연결된 불가해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각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극히 실제적이면서 중요한 인간본성 가운데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옥>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결핍된 인간 이해를 변증하려는 의도로 기독교 신앙의 주요 개념들을 왜곡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비합리적 서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일견하기에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기법 같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감독 자신의 부족한 인간 이해를 어떻게든 변증해보기 위해 비합리적 감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김한요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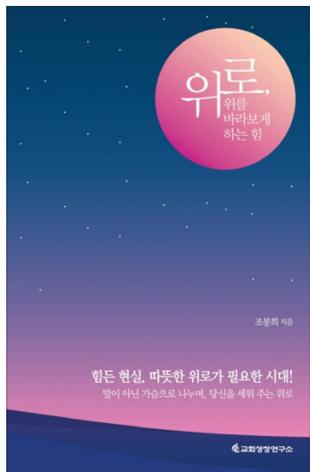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 오후 2시 / 본당
- 토요 새벽 헌시바 기도회 : 토 오전 6시 / 본당
- 주중새벽기도회: 화 - 금 : 오전 5시 30분 / 본당



조봉희 목사 저서 <위로,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며 가야”



사람은 힘들거나 지쳤을 때 누군가 위로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크리스천들은 힘들거나 지쳤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저자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는 고린도후서를 강해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며, 더 나아가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며 함께 치유 받으며 회복해 가길 호소하고 있다.

위로 ▲가시 덕분에 ▲실격자가 아닌 합격자로 살기이다. 이 중에서 ‘함께 더 나아가 가는 위로’가 눈길을 이끈다. 조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적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면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하며 질타할 때가 아니다. 정치가들의 소모적인 공방전은 백해무익하다. 무의미한 공격을 멈추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고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것이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참된 위로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로를 받은 만큼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위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나는 것, 기운이 빠져 있다가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수록 함께 더 나아가 가는 미래 행복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함께 나아가 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가슴 깊은 사랑으로 썼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상처 대신 위로를 받으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애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잠을 설쳤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교회로부터 온 소식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다.

조봉희 교회성장연구소 | 240쪽

말이 아닌 가슴으로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

기독교의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이 책은 위로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로 위로하며 살면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와 악천후에서도 멋진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책은 저자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강해한 설교 1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내용은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서로 세워주는 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로 ▲성공보다 승리를 지향합시다 ▲당신이 곧 메시지다 ▲내 인생에 퇴보는 없고, 진보만 있을 뿐이다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갑시다 ▲함께 은혜받으며 살아갑시다 ▲탁트인 가슴으로 관계 맺기 ▲함께 더 나아가 가는 위로 ▲현금의 헌신을 향상합시다 ▲현금의 부메랑 축복 ▲권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정직한 토설과 자기

구성내용은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서로 세워주는 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로 ▲성공보다 승리를 지향합시다 ▲당신이 곧 메시지다 ▲내 인생에 퇴보는 없고, 진보만 있을 뿐이다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갑시다 ▲함께 은혜받으며 살아갑시다 ▲탁트인 가슴으로 관계 맺기 ▲함께 더 나아가 가는 위로 ▲현금의 헌신을 향상합시다 ▲현금의 부메랑 축복 ▲권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정직한 토설과 자기

이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말로 가슴 깊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슴 깊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 ‘일일전심사’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마디의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아픈 가슴으로 하는 충고가 아니라면 그 충고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반대로 어떤 충고나 충언을 하기 전에 깊이 고민했지만, 말을 한 후 마음이 아프다면 그 말은 반드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모두 속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조 목사는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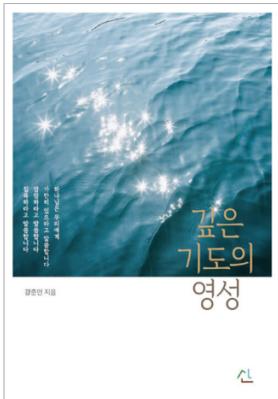
그를 거부했다. 요즘에도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를 일언지하에 거부한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다른 제자인 디도는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받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처음부터 가슴 따뜻한 목회자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길 염원했다. 그는 사랑의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의 생사고락을 같이하자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목회자와 성도가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임을 천명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의 서신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상했고 바울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러나 결국에는 함께 더 나아가 가는 영적 성숙을 통해 서로 위로를 받았다.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며 자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곧 서로서로 함께 나아가 가는 교회 생활이다. 교회는 서로 함께 더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 가는 위로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한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깊은 기도의 영성



화하고 이를 통해 영성이 깊어지고 내면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이 책은 저자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집필했다.

저자는 “이 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책이다. 깊은 기도는 내면을 가꾸는 기도이면서 이를 부요케 하는 기도이다. 또한, 환경을 초월해서 고요함을 경험케 하는 기도이다. 영혼에 대해 탐구하는 중에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한

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또한 영혼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분주한 것을 싫어한다. 특별히 영혼은 산만하면 불안해한다.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하며 너무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린 것을 좋아한다. 아울러 속도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영혼은 자족하게 되고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산만한 기도가 아니라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한다.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할 때 이 책이 도움을 주길 바란다. 나는 기도

에 관해서는 영원한 초심자이다. 날마다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원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우주를 움직이시며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천국의 신비를 알 수 있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강준민牧사는 서울 신학대학교와 아주사신학대학원, 탈북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미국 LA 소재 로고스교회, 동양선교교회에 이어 현재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다. 저서로는 <뿌리 깊은 영성>, <위대한 투자>, <확신 기도의 힘>, <성경 암송과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안식의 영성>, <믿음장에서 만난 그리스도>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Advertisement for Samsung Shipping (SAMSUNG SHIPPING) featuring a cityscape illustration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moving, car shipping, and storage. Contact information: 1-877-580-2424,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할렐루야한인교회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 오전 8시
주일 2부 : 오전 11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 오전 5시 20분(화~금)
금요철야예배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8시 30분
토요새벽예배 : 오전 6시



송재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595-3110
www.hkchurchla.org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유치부,유년부 오전11:00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새벽기도회 오전6:00



김은목 목사

주소 및 전화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213) 251-9191 www.pcjc.church

평화교회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 김종용 목사
부총회장 : 박문석 목사
LA노회장 : 주재임 목사
남부노회장 : 김인철 목사
총무겸 회계 : 김선광 목사
부총무 : 진권호 목사
서기 : 안선신목사
부서기 : 김영일 목사
회록 서기 : 조은혜 목사
회록부서기 : 박재민 목사
부회계 : 안정희 전도사
감사 : 강성수 목사, 박정희 목사

교단가입문의 : 213-272-6031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에배 오전 8:30
주일 2부에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7:45
2부 오전 9:20
3부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풍성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CA90057
T. (213)381-9490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주방조리사 모집
Buena Park 감사한인교회
- 경력자 우대
- 문의 714-521-0991
- admin@thanksgivingchurch.com

평화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임목사 구봉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주일 1부 예배 주 일 오전 7:30
- 주일 2부 예배 주 일 오전 9:30
- 주일 3부 예배 주 일 오전 11:30
- 금요찬양 예배 금요일 오후 7:30
- 한어대학청년 예배 주 일 오후 2:00
- EM(영어예배) 주 일 오전 9:30/11: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521-0991 F. 714-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다우니제일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샘물교회

예배시간 안내

- 웹사이트/ 24시간 온라인 예배
www.sm.church
- 온라인 새벽기도 화~금 새벽 오전 6시 (유튜브)
- *대면 예배 안내
- 주일 오전 11:00 (Live Stream)
-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 청년부 주일 오전 11:00
- 영어 EM/Youth 주일 오후 : 1 pm
- *라디오 설교방송
- 미주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5:00



정기정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el) 714-606-0490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1:45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 (503) 649-399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 오전 7:45
- 주일2부 오전 9:45
- 주일3부 오전 11:30
- EM예배 1부 오전 9:45
- 2부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찬양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매월 마지막 금요일)
- 청년부예배 오후 1: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담임목사 오 병익

BETHEL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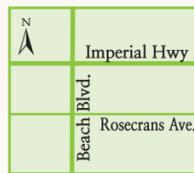
남가주벤엘교회

예배시간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1부 08:00 AM | 2부 11:00 AM
새벽예배 Morning Worship
토요일 06:00 AM

YouTube
bethel church social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bethelchurchsocial@gmail.com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LA씨티교회

일터선교사를 세우는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주소 및 전화

741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05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이은상 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후 12시
주일예배 4부 오후 2시
금요성령집회 금 오후 7시
새벽기도(화~금) 오전 6시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972-446-0178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밸리채플

OC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주일 3부 오후 1:30 (영어예배)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안에교회 ICCC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합동총회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icccla.org

오후 1:00 주일 1부

오후 7:30 수요영성집회

오전 5:30 (월-금) 새벽예배
오전 6:00 (토)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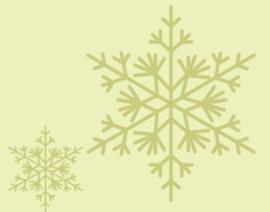
에브리데이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www.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8:00am - 1부
9:30am - 2부 / 교육부
11:15am - 3부 / 교육부 / 향기마을
1:00pm - 4부(청년부)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9:30am / Sunday

Wednesday 수요일
7:30pm

Mon~Sat 월요일~토요일
5:30am - 새벽기도회

Address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019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토요일 오후 5:45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7:45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9:45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김경진 담임목사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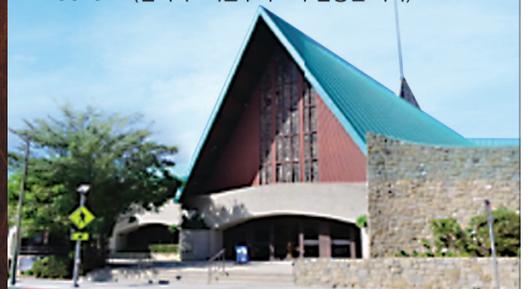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방송안내

CGNTV (공중파: KVMD 44.9)
본방송: 화요일(PM10:20), 재방송: 토요일(PM4:30)
KCMUSA (인터넷 방송: www.kcmusa.org)
YOUTUBE (검색어: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ANC 온누리교회

축성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hope makes all things work, and love makes all things beautiful.
May you have all three for this Christmas.”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모두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